



케이팝 정상 향해 고공비행! 9인조 신인 아이돌 그룹 고스트나인이 가요계에 출사표를 던졌다. 고스트나인이 23일 서울 강남구 CGV점담씨네시티에서 열린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신곡 '야간비행'을 열창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데뷔 앨범 '프리 에피소드1:도어'를 발표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작년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X101'로 얼굴을 알린 이진우, 이우진, 이태승 등이 멤버로 소속됐다. 뉴스1



트와이스·세븐틴 日 '4차 한류' 선봉

각각 오리콘차트 정상 인기몰이

케이팝이 일본에서 한국드라마와 함께 '쌍끌이'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다. 현지에서 '많이 본 콘텐츠'(넷플릭스)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드라마의 인기를 트와이스와 세븐틴 등 케이팝 그룹들이 이어가며 일본 한류에 새로운 열기를 불어넣고 있다.

2017년 한류의 주역으로 꼽혔던 트와이스가 여전히 견재한 인기를 과시하며 케이팝의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 16일 발표한 세 번째 베스트 앨범 '해시태그트와이스3'(#TWICE3)로 첫 주 만에 일본 판매량 집계 사이트 오리콘의 주간 앨범 차트 1위를 거머쥐었다. 현지 최대 레코드숍인 타워레코드 일간 판매 랭킹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트와이스는 이번 음반으로 '11연속 플래티넘' 달성을 노리고 있다. '플래티넘'은 일본레코드협회가 출하량 25만 장을 넘긴 음반에 부여한다. 그룹은 앞서 일본에서 내놓은 10장의 음반으로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이들은 기세를 이어 11월18일 일본에서 새 싱글이자 일곱 번째인 '배터'를 발표한다.

그들 세븐틴은 9일 선보인 일본 미니 2집 '24H'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들은 발매 직후 오리콘 차트와 빌보드 재팬의 주간 앨범 차트 1위에 각각 올랐다. 23일 기준 차트에서도 6위에 랭크됐다.

세븐틴은 이로써 2018년 5월 일본에 진출한 이후 '24H'를 포함해 현지에서 발표한 네 장의 음반이 오리콘 차트 주간 앨범 랭킹 정상에 오르는 기록을 갖게 됐다. 11일에는 현지의 대표 음악프로그램으로 꼽히는 TV아사히 '뮤직스테이션(엠스테)' 무대에도 올랐다.

세계무대를 발판삼아 활동하는 그룹 방탄소년단도 열기를 더한다.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주간 싱글 차트 2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케이팝 그룹들의 활약은 한국 대중음악 콘텐츠에 대한 일본 대중의 관심을 계속 끌어올리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SNS 플랫폼인 트위터는 최근 "케이팝(KPOP)을 가장 많이 언급한 나라는 미국이었고, 일본이 2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디바' '담보' '국제수사' '죽지 않는...' 추석 흥행 대결

줄어든 고향길, 극장가는 '4파전'

스릴러·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 예상 밖 격전지... '돌맹이' 후퇴 '강철비2' '다만약' 재편집 개봉 침체된 극장 활기 회복 기대감

추석 극장가가 뜻밖의 '전성터'가 될 전망이다. 추석 명절은 여름과 겨울, 설과 더불어 극장가 성수기로 꼽혀왔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과연 얼마나 많은 관객이 극장을 찾는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추석을 겨냥한 영화들이 대거 개봉을 확정하는가 하면, 일부 작품은 갑자기 치열해진 경쟁을 피해 돌연 개봉을 연기하는 등 '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추석 극장가 예측 불가 김대명 주연 '돌맹이'(감독 김경식·제작 영화사태이크)가 언론배급 시사회를 불과 하루 앞둔 22일 밤 개봉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 당초 23일 시사회를 열고 24일 김대명 언론 인터뷰 등 프로모션 이후 30일 개봉하기로 했지만, 경쟁작이 한꺼번에 몰리자 10월 중 다시 개봉일을 정하기로 했다.

'돌맹이'가 한발 뒤로 물러난 것은 이번 추석 연휴 극장가가 감염병 확산 사태로 예상치 못한 격전지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신민아의 '디바'(감독 조슬예·제작 영화사 OAL)로 출발해 연휴가 본격 시작하는 29일에는 성동일·하지원의 '담보'(감독 강대규·제작 JK필름)와 광도원의 '국제수사'(감독 김봉한·제작 영화사 장춘), 이

에 따라 송중기는 '승리호'를 통해 12월 대전에 합류한다. 이미 몇몇 한국영화 제작자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12월 개봉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송중기는 우주 배경의 SF장르라는 희소성을 갖춘 '승리호'의 경쟁력에 자신감을 보인다. "우주 모험 활극"이라는 소개와 함께 작품이 지

송중기의 '승리호'...12월엔 날아오른다

3차례 연기 끝에 12월 확정 연말 극장가 대전 홈미진진

배우 송중기가 연말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피할 수 있을까.

송중기가 주연한 영화 '승리호'(감독 조승희·제작 영화사 비단길)가 12월 개봉을 확정했다. 당초 여름시즌 개봉을 준비하다 추석으로 공개 시기를 미뤘던 제작진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관객 확보가 어려울 수



디바



담보



국제수사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

정현의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감독 신정원·제작 브라더픽처스)이 일제히 개봉한다. 추석 연휴를 정조준한 세 작품은 앞서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개봉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후퇴해 이번 추석을 택했다.

●여름 개봉 '강철비2' 재공개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올해 여름 정우성이 주연해 178만 관객을 모은 영화 '강철비2:정상회담'(제작 스튜디오제니우스우정)이 '확장판' 형태로 30일 재개봉한다. 처음 버전에서 19분을 보냈다. 연출자 양우석 감독은 "7월 개봉 당시 데타가 벌어지기 전 한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일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새롭게 편집했다"고 밝혔다.

추석 극장가에 깜짝 등판한 '강철비2:정상회담' 확장판은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의 계열인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공개된다. 29일 개봉작 세 편 가운

데 극장 체인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배급사들로서는 상영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8월 개봉해 435만 명을 동원한 황정민·이정재의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감독 홍원찬·제작 하이브미디어어코프)도 기존보다 7분을 늘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에 맞춘 '파이널컷' 버전 심의를 마치고 재개봉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 연휴 동안 이동과 모임 자제를 권고한 방역당국의 방침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추석 시즌에 과연 얼마만큼의 관객이 극장에 모여들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당장 9월 극장가는 여전히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극장 총 관객은 178만2516명(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00만명에 달했던 풍경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22일 일일 관객도 3만9239명에 불과했다. 이해리 기자 gofi1024@donga.com

년 오락성도 감소해왔다.

12월 극장가에서 송중기가 새로운 기회를 얻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또 다른 작품에도 나선다. 올해 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남미 콜롬비아에서 진행하던 영화 '보고타'(감독 김성제·제작 영화사 수백) 촬영을 중단했던 송중기는 내년 초 로케에 다시 나설 계획이다.

동시에 tvN 드라마 '빈센조'도 촬영한다. 방송가 실력파로 꼽히는 김희원 PD와 박재범 작가가 모여 내놓는 독특한 설정의 드라마로, 극 중 송중기는 이탈리아에서 도망쳐 한국으로 온 마피아 역을 맡아 악당의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이야기를 이끈다. 이해리 기자 gofi1024@donga.com

연예뉴스 HOT 5

봉준호 감독, 美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인'



봉준호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 4관왕에 오른 봉준호 감독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뽑혔다. 타임은 23일(한국시간) '2020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을 발표했다. 한국인으로는 봉 감독과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영화 '설국열차'와 '옥자'로 봉 감독과 인연을 맺은 틸다 스윈튼은 추천사를 통해 "새로운 태양처럼 2020년 영화계의 비전으로 떠올랐다"며 "매우 독특하고 숙련되고 활발하며 결단력 있고 낭만적인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했다.

BTS, 빌보드 뮤직 어워드 2개 부문 후보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권위 있는 대중음악 시상식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2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가 23일(한국시간) 발표한 후보 명단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톱 듀오·그룹'과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 지명됐다. 본상 중 하나인 '톱·듀오·그룹' 부문 후보에서 조나스 브라더스, 마룬5, 펠릭스 더 디스코 등과 경쟁한다.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 후보에는 엑소, 갓세븐 등도 이름을 올렸다. 방탄소년단은 해당 부문 4년 연속 수상에 도전한다. 4월 열리려던 시상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으로 10월14일 미국 LA에서 개최된다.

나훈아 'KBS2 한가위 공연' 무보수 출연



나훈아

가수 나훈아가 KBS 2TV '2020 한가위 대기획-대한민국 어게인'에 출연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23일 알려졌다. 나훈아 측은 이날 제작진을 통해 "은 국민과 함께 힘을 내고 희망을 전한다는 취지로 기획한 무대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을 다하고 싶다"며 출연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훈아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15년 만에 TV로 팬들을 만난다. 23일 온라인 화상통화 시스템으로 연결된 1000명의 방청객 앞에서 28곡을 열창한다. 실황은 30일 오후 8시30분 방영된다.

김지수, 각막·장기·골수 기증 등록



김지수

연기자 김지수가 장기 기증한 사실을 밝혔다. 김지수는 23일 SNS를 통해 "각막기증과 골수기증에 관심을 부탁한다"며 "저는 2005년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통해 각막, 장기, 골수 기증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 등록한 지 7년 만에 골수 기증을 했는데 골수(조혈모세포)는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라 의미가 남달랐다"고 덧붙였다. 김지수는 4월 종영한 MBC 드라마 '365:운명을 거스르는 1년'에 출연한 이후 현재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YG엔터테인먼트, 10배 큰 신사옥으로 이사

그룹 빅뱅, 블랙핑크, 워너 등이 소속된 매니지먼트사 YG엔터테인먼트(YG)가 기존 사옥보다 10배 큰 신사옥으로 옮긴다. YG는 23일 10년간 사용한 서울 마포구 합정동 사옥 옆에 자리한 신사옥이 착공 4년여 만에 최근 완공돼 이전한다고 밝혔다. 지하 5층부터 지상 9층 규모로, 실내 면적은 총 1만9834㎡(약 6000평)에 달한다. 북측형 강당과 대형 댄스연습실 등과 식당, 운동시설 등 직원 복지 공간도 마련했다. YG 측은 "홀어져 있던 조직들이 올해 연말까지 신사옥으로 모두 모이면 업무 효율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고 기대했다.